

退溪의 「聖學十圖」에 나타난 主敬의 眞意

천병준*

【 차례 】

1. 緒論
2. 敬의 原理를 存養하는 領域
 - 1) 宇宙를 統體로 본 太極圖
 - 2) 人間과 萬物을 一體로 본 西銘圖
3. 敬의 修鍊을 要諦로 하는 領域
 - 1) “一身主宰의 心”과 “一心主宰의 敬”을 綜合한 心學圖
 - 2) 敬의 修鍊으로 專一하는 夙興夜寐箴圖
4. 結論

【 국문초록 】

본고는 退溪集에서 “「聖學十圖」에 나타난 主敬의 眞意”를 究明해보려는 데 있다. 聖學十圖는 聖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性理學의 핵심을 열 가지로 요약, 정리한 儒家哲學의 必讀書이다. 퇴계는 68세 되던 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편찬한 이유는 어린 宣祖 임금을 聖王으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학문을 통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계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몸소 “敬을 存養하고 省察하는 心의 修鍊”을 끊임없이 실천하여 人道가 確立될 때, 그 德行이 思·學을 兼備하고, 動·靜을 一貫하고 內·外가 合一되어, 顯·微가 無間한 天道의 無限境地로 진입할 때 天人合一의 境地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퇴계는 聖學을 이루는 十圖는 모두 敬을 土臺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본고는 “主敬”을 이루는 영역만을 선택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敬을 精神的으로 存養해야하는 영역’과 ‘敬을 몸소 實踐해야하는 영역’으로 나누었다.

* 경북대학교 철학과 강사

먼저 전자는, 宇宙의 本源인 太極에서 陰陽五行에 의해 人間이 生한다는 儒家의 論理가 바로 “統體一太極”이다. 또 각 존재는 天賦의 性을 받아 각각의 太極을 갖추고 있다는 論理가 “各具一太極”인 것이다. 둘째는 萬物一體를 주장하는 西銘圖이다. 이 西銘圖의 내용은 ‘하나의 理致가 모든 사물에 나뉘어 적용된다.’고 설명한 것이 바로 “理一分殊說”인 것이다. 이것에서 비롯하여 퇴계는 人間과 事物은 모두一體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이치는 결국 하나의 원리로 귀결된다는 것이 “理歸于一說”이다. 그 다음, 敬을 몸소 實現해야 할 영역에서 첫째로, 퇴계는 心學圖에서 一身을 主宰하는 것이 心이며, 나아가 一心을 主宰하는 것은 敬이라고 하였다. 결국 敬으로 人間の 性情을 美化해야 한다고 “休養性情”을 피력하였다. 둘째로, 夙興夜寐箴圖에서는 “인간이 道를 떠날 수 없다”는 儒家의 本旨에 의해 “夙夜”와 “晨興”에는 或省舊愆하여 敬을 自覺하고, “讀書”와 “應事”할 때도 凝神息慮하여 敬을 간직하며, “日乾”과 “夕惕” 그리고 “兼夙夜”에는 敬을 省察하여 “實踐으로 證明해야 한다.”라는 則驗于爲로써, 이것은 慎獨으로 篤行의 修鍊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主敬, 存養, 省察, 統體와 各具, 主宰, 夙興夜寐, 道問學, 尊德性, 慎獨, 篤行.

1. 緒論

퇴계(1501~1570, 名: 滉, 字: 景浩, 又號: 退陶, 諡號: 文純)의 『聖學十圖』는 聖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性理學의 내용으로 要約 整理한 儒家의 必讀書이다. 퇴계는 聖學十圖에서 天理를 本心에 守持하고 學問과 言行에서 主敬으로 修養함을 要諦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退溪가 주장하는 “主敬의 진실한 의미(眞意)”가 무엇인가를 究明해 보려는 데 있다. 中國의 儒家哲學 중의 특히 人性論에서 “人間과 自然”이란 관계를 人間の “內面世界에서 解決”하려는 人性的 문제가 줄곧 論議되어 왔었다. 여기에서, 人間の 內面世界에서 해결이란, “인간이 天으로부터 받은 바의 性은 곧 理이며”¹⁾, “性을 갖추고 있는 것은 心이다. 또 性이 發現

하는 것은 반드시 情에 의존한다.”²⁾ 이 理·性·心·性·情의 네 개념을 동시에 아우르자면, “심이 性과 情을 統攝한다는 논리가 바로 心統性情”³⁾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란 虛明靈覺한 성질로 直觀能力을 동시에 保有하고 있다. 그러므로 性이 發하여 情이 됨에서 外物과 應하되, 性이 未發 때에는 ‘中’을 유지하고 있지만, 性이 已發 때에는 ‘中節’을 이루게 하는 人間의 丙面世界 즉, “道德的 主體에서 解決”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人間이라도 主體를 本有하고 있지만, 동물과 하등 다름 바 없는 것을 道德的 主體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예가 바로, 아프리카 원주민의 경우이다. 좀더 깊이 따져보자면, 그들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自利한 本性和 無知한 本能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道德的 主體”라고 보기에는 정말 미흡하다. 반면에, 스승의 教化로 인간과 인간의 交流 속에 文化적 素養을 共有하고, 자신의 主體的 反省으로 惡을 排除하고 善을 指向하려는 價値觀 속에 德性を 完備하고 살아가는 것을 道德的 主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價値觀의 도덕적 수양(主敬)을 요한 發端의 所從來는 어디에서 있으며, 퇴계가 人倫에 根本을 두고, 窮理와 力行을 모두 心法에서 추구한다고 하는 말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고대 人性論은 周代(1111-771 BC)의 정치적 理想을 가진 治者들로부터 發端한다. 치자들은 殷나라 紂王의 방탕과 음란 그리고 그의 무지에서 오는 포악성에서 “性은 정말 惡으로 기울기 쉽다”는 생생한 실증을 체득한 후, 治國과 天下를 平正하려는 理想에서 “本性的 修養”이 先決問題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亂國時期에는 무엇보다도 “人間性 回復 問題”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었다. 그리하여 이의 對案으로 人性的 價値를 提高하려고 旗幟를 든 것이

1) 『遺書』, 第18, 伊川先生語 4. “性則是理.”

2) 『朱子語類』, 卷5, 性理2.

3) 『退溪集』, 聖學十圖, 第6 心統性情圖, 參照.

바로 “敬”⁴⁾이고 “德”이었다. 德은 존재마다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本性의 努力에 있다면, 敬은 필연적으로 善을 善되게 하는 본연의 “自覺的主體”에 있는 것이다. 自覺的主體로서의 敬은 외부로부터 오는 惡習을 排除하고 그것에 被動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道德性的의 自覺에서 오는 主動的인 것, 즉 道德的 規範에서 오는 覺性和 集約에 의해 주어지는 窮極의 실체이며, 동시에 一身을 主宰하는 心과, 心을 統制하는 총체적 本源인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퇴계의 “主敬”이라는 개념은 『周易』 上傳에서 “敬으로써 인간 內心을 끈게 함”⁵⁾과 程伊川(1033~1107)이 주장하는 “主一無適”과 더불어 “마음을 持敬(마음에 敬을 유지함)하면 인간 內心이 스스로 직립되는 것이다.”⁶⁾ 그리고 주자는 “모름지기 敬으로 하여 學問에 나아가 知에 이른다.”⁷⁾라고 하였다. 위의 논제들로 보아 周敦頤(1017~1073)에서 나타난 인간도 예외 없이 各具一太極을 이룬다는 太極論에서 출발하여 程伊川의 主一無適이라는 主敬論에 이어 宋明理學을 집대성한 朱熹(1130~1200)로부터 퇴계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비로소 “主敬論”이 確立된 것으로 보인다. 공자와 주자의 학문을 계승한 퇴계는 누구나 聖人이 되기 위해 必讀해야 할 性理學의 핵심을 聖學十圖로 집약시키고 그것은 “敬을 주로 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금 이 十圖는 모두 敬을 주로 한다.”(今茲十圖 皆以敬爲主焉)⁸⁾라고 하며, “敬이 聖學의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말을 어찌 믿지 못하는가?(敬爲聖學之始終 豈不信哉)”⁹⁾

4) 金忠烈,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東洋人性論序說』, 延世大出版部, 1982.

5) 『周易』, 上傳, 坤卦 “敬以直內” 參照.

6) 『二程全書』, 卷35, “心敬則內自直” 參照.

7) 『朱子大全』, 卷32, 答張欽夫. 參照.

8) 『退溪集』, 上, P.203.

9) 『退溪集』, 上, P.210

라고 주장하듯이, 우리는, 퇴계의 聖學十圖는 모두 主敬으로 心氣를 貞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퇴계의 聖學十圖는 우주원리를 인간의 철학적 관점에서 밝히는 인식문제로써 敬의 실천방법과 절차도 모두 인간학적 자기 실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퇴계의 道德性和 學究的인 人間觀을 찾아 낼 수 있겠다. 예컨대, 그는 侍講의 입장에서, 17세의 어린 임금인 宣祖를 聖王으로 이끌기 위해 儒學의 理念體系와 居敬의 修養論을 정리한 聖學十圖를 諫諍하여 箴言하시라는 것도 좋은 一例가 된다. 그리고 퇴계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敬은 思·學의 有機的 構造에 있다. 이것은 즉, 학문과 생각을 모두 갖추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유지하며, 안과 밖을 일치시키고, 분명하게 드러난 것과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一貫되게 하는 즉, 儒家的 本旨(天道에 따라 人道가 定立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진다. 우리가 착수해야 할 聖學十圖에 대한 작업은, 모두 敬을 위해서 썩어지지 않는 도해는 없다. 그렇지만 그 中에서도 특히 主敬을 강조하는 부분은 「太極圖」와 「西銘圖」, 그리고 「心學圖」와 「夙興夜寐箴圖」에 있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까 한다. 「太極圖」는 天地 統體의 一太極과 그리고 각 존재마다 各具의 一太極이 갖는 원리가 本性의 修養에서 오는 主敬과 어떠한 哲學的 意味를 갖는가를 살필 것이고, 「西銘圖」에 나타난 敬은 인간과 사물에 모두 적용된다는 「理一分殊說」에서 이 ‘理致는 人·事에서 하나로 귀결(理歸于一)되는 논리를 탐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제8의 「心學圖」에서, 퇴계는 一身은 心이 주재하고, 一心은 敬이 主宰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그런데, 敬이 道德的 主體로써 心을 主宰하는 점에서 드러나는 現象의 功效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夙興夜寐箴圖」는 持敬을 유지할 때, 見聞之知에서 德性之知를 얻는 것은 君子로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의 우리들에게 “敬의 存在根據”가 “存養의 認識根據”로 學問에 다양하게 適用될 수 있을까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그러면 聖學十圖의 圖解를

통해 하나하나 考察해 나가기로 한다.

2. 敬의 原理를 存養하는 領域

1) 統體—太極과 各具—太極으로 본 太極圖

(1) 統體로써 본 一太極

中國 宋代의 朱子は 周濂溪의 太極圖說에서 태극의 이념을 이어받아 本體論의 구조를 정립하였다. 그것의 하나는 太極, 즉 理를 觀念的 規定에서, 다른 또 하나는 氣와 理의 관계는 形質을 이룬다는 現象의 實在的 規定에서 자신의 철학적 논리를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태극을 理, 음양을 氣로 규정하고 현상의 모든 조각성은 氣의 所爲라고 하고, 凝結하거나 造作할 수 없는 理는 순수 관념으로 맑고 空濶한 세계이며, 法則, 原理, 形相, 條理, 理念으로서 추상적 無形迹의 理이며 形而上인 것이다. 퇴계 역시 주자와 다를 바 없이, “理와 氣는 결코 二物이며 또는 서로 섞일 수 없음”(理與氣決是二物, 不雜)이라는 것과 “理와 氣는 분리할 수 없음과 또는 서로 떠날 수 없음”(不可分開, 不離)으로 구별하였다. 다시 말해서, 理로서의 太極은 天地造化의 樞紐이며, 品彙의 根柢로써의 本體이고, 動靜은 陰陽의 氣이며, “動靜하는 所以의 理가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太極이다.”¹⁰⁾ 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요약하건대, 태극을 理로 본 觀念的 規定과 氣를 현상의 實在로 본 實在的 規定의 논리를 종합하여 “統體로서의 一太極” 즉, 宇宙 總 本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퇴계의 太極圖에 접근하도록 하자. 제일 위에 있는 둥근 원, 즉 ○을 말한다. 그것은 無極이면서 太極이라는 뜻이다. 無極과 太極을

10) 『朱子大全』, 卷45, 答楊子直.

『性理大全』, 卷1, 太極圖朱子小註.

統體에서 말하면 같은 의미이다. 이것은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생성되게 하는 根源者이며, 理가 氣를 主宰하는 條理이다. 이 점에서 주자는 儒家的 입장에서 “統體로서의 태극”, 즉 “無極과 太極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늘 위의 일은 소리고도 없고 냄새도 없으나 실제로 변화의 요체가 된다. 그것은 品彙의 根柢이다. 그러므로 無極이면서 太極이라고 한 것이다. 太極의 범위 밖에 다시 無極이 있는 것이 아니다.”¹¹⁾라고 하였다.

즉, 주자가 논의한 無極과 太極은 시간과 공간상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太極이라 할 때 그것을 形象的 物의 존재로 보아 個別化하거나 概念化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물로 실추되기 때문에 無極이라 한 것이며, 반대로 無極을 無形象으로 말하면 그것은 空虛하여 인간의 언어에서 오는 固着性이나 思辨性에 흐르기 쉽기 때문에 理의 實有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太極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점에 치밀한 주자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다.

“無極은 無形이요, 太極은 有理이다.”¹²⁾

라고 하여, 無極의 無形은 현상을 초월해 있는 초월성을 의미하고, 太極을 有理로 말한 것은 太極의 理는 어떤 존재나 사물이든 간에 理同의 普遍性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은 萬殊의 一本으로 모든 존재를 공통으로 포괄하는 理一이며, 原理世界이고 本體 혹은 理一分殊의 “統體”인 것이다. 그리하여 주자는 태극을 ‘天地 안에 있는 太極’과 ‘萬物 안에

11) 『朱子語類』, 卷1, 朱子太極圖說解.

12) 『朱子語類』, 卷1, 參照.

있는 각각의 太極'을 잘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太極은 다만 천지만물의 理이다. 天地 안에서 말하면 天地 안에 太極이 있다. 萬物에 있어서 말하면, 萬物 안에 각각 太極이 있다.”라고 하여 太極을 理一로, 만물의 分殊됨을 함하여 “理一分殊” 즉, “統體로서의 一太極”이라는 것이다.

(2) 本性에 各具된 一太極

지금까지는 '無極과 太極'을 거론한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영역으로 “陽動陰靜”은 五行(水·火·木·金·土의 氣)이 生成되면서 각각 하나의 人·物들은 本性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존재나 사물마다 각각 하나의 太極을 갖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것을 퇴계는 聖學十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의 道가 남성을 이루고 땅의 道가 여성을 이루는 것은 氣의 변화에서 말한 것이다. 각기 하나의 本性을 가지므로 남자와 여자도 '각각 하나의 太極'을 가진다. 만물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것은 형체의 변화에서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각기 하나의 本性을 가지는 것은 萬物도 '각각 하나의 太極'을 가진다.”¹³⁾

주자는 인간(男女)과 천지만물은 모두 生하고 또 生하는 本性의 理로 말미암아 “各具一太極”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천하에 어찌 性밖의 物이 있겠는가? 五行의 生함에서 그 氣質에 따라 稟賦한 바가 같지 아니하니 이른바 이것이 '각각 하나의 本성'(各一其性)이다. 각각의 一性은 渾然한 태극 전체이며, 一物 중에 각각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고 性에도 太極이 있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¹⁴⁾라고 하였다.

儒家哲學이 갖는 특수성은 인간에 갖추어진 性과 우주본체의 太極은 동일

13) 『退溪集』, 「聖學十圖」,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992.

14) 『退溪集』, 「聖學十圖」, 太極圖說註.

한 맥락에 있다고 보는 점이다. 이것은 오직 人性論에서만 갖는 유일한 특색이다. 우리는 人性論을 구성하고 있는 概念들, 즉 天, 命, 性, 理의 개념을 同一性으로 보는 점에서 그 淵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周敦頤는 太極圖說에서, 理를 중심으로 하여 태극 본연의 우주 本體論을 세웠고, 氣로써 陰陽, 五行, 만물이 생성되는 변화과정을 定立하였다. 연달아, 邵康節은 皇極經世書에서 太極, 陰陽, 四象, 八卦에 의해 太極을 一氣로 해명하였다. 그리고 張載는 陰陽二氣에 중심을 두고 有無混一之常에서 인간의 본성은 天地之性和 氣質之性으로 나뉜다고 극명하게 밝혔다. 드디어 程伊川에 이르러 陰과 陽이 動靜하는 所以로서 理의 實在性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그는 太極則理와 陰陽則氣라고 명명함에서 本體論을 定礎함과 동시에, 그의 일대업적으로 인간의 本性은 즉, 性이 곧 理라는 “性則理”의 命題를 주창하고, 그것은 朱子學과 함께 “程朱學” 혹은 “性理學”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朱子에 이르러 철학적 개념들이 세밀히 분석되고 集大成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즉, 우주 본체에서만 적용하던 理와 氣개념들을 人性論에서 와서는 性和 情으로 連繫시키게 되었다. 특히 주자는 理의 ‘元亨利貞’이라는 天地의 “四德”과 인간 本性의 ‘仁義禮智’라는 人間의 “四德”을 대응시키고 이것은 즉, “자연의 필연적 존재법칙(所以然之故)으로서의 理는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도덕법칙(所當然之則)으로서의 理와 同一하다”¹⁵⁾는 논리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性是 곧 理이다. 心에 있어서는 性이라고 부르고, 사물이나 대상에 있어서는 理라고 부른다.” “心의 理는 太極이고, 心의 動靜은 陰陽이다.”¹⁶⁾

라는 점에서 性是 理와 동일한 의미로써 心의 理는 太極이라는 논리를 演繹

15) 『大學或問』 朱子註,

16) 『朱子語類』, 卷5, 性理二.

하기에 이른다. 즉, 宇宙의 天理에서 物性이나 人性은 태어나서 본성을 갖는 순간 “各具된 一太極”을 확보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心의 理는 太極일 수밖에 없고, 心의 動靜은 陰陽 氣로써 “各具 一太極”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太極圖에 의한 敬字通貫動靜說

퇴계는 성학십도에서 “陽動陰靜” 즉, 陽의 운동이 極에 다다르면 점차 陰으로 변해가고, 陰의 고요한 상태가 極에 다다르면 점차 陽으로 변해간다는 우주 본원의 음양에 입각해서 “主敬하면 心氣가 貞해진다”¹⁷⁾는 요지에서 “敬字通貫動靜說”을 주장한다.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敬字는 動靜을 通貫한다. 다만 未發 時에는 渾淪한 敬의 體이고, ……既發한 즉 事에 따라 省察하면 敬의 用이 된다. ……敬이 定立되고 義가 行해지면 어디에서나 天理의 바름이 아닌 것이 없다.”¹⁸⁾라고 하였다.

퇴계는 敬으로써, 心의 動靜에서 未發과 既發을 通貫하라고 力說한다. 이것은 다시 體用으로 나뉘고, 未發에서 敬을 存養하고, 既發에서 敬으로 省察하여 動靜을 通貫함이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그러할 때, 선천적 未發의 理性智와 후천적 既發의 經驗智가 종합될 때, “體·用”, “未·既”, “內·外”가 涵養되며 언젠가 마음이 하나로 일관하고 흰히 관통하는 경지가 열린다는 것이다. 퇴계는 주자의 致中和 思想으로 居敬窮理함에서 靜中動 혹은 動中靜속에서도 心이 항상 主敬으로 두루 貫徹함으로써 存仁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敬으로 靜中之動을 主管함이 있고, 이로써 고요해도 감동하지 않음이 없으

17) 『朱子大全』, 卷32, 答張欽夫.

18) 『朱子大全』, 卷43, 答朴澤之.

며, 敬으로써 動中之靜을 살피니 이로써 감동해도 일찍이 고요하지 않음이 없다. 고요함으로 항상 감동하고 감동하면서 항상 고요하니 이는 心이 고요한 감동을 두루 貫徹하니 한 순간도 不仁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하므로 君子는 中和를 이루는데 天地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化育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¹⁹⁾

퇴계는 “中和 和”, “性과 情”으로 心이 性情을 포괄하고 動靜을 일관하여 中和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 능히 敬으로 靜中之動에는 主管(存養, 習)함에 유의하고, 動中之靜에는 敬으로 살피(省察, 慎獨)고요해도 항상 감동하고, 감동해도 항상 고요하게 하여 仁을 성취하고 中和를 이루니 한 순간의 不仁함도 없으며, 이것이 天地의 正位에 서는 所以가 된다고 천명한다.

2) 人間과 萬物을 一體로 본 西銘圖

(1) 퇴계의 理歸于一說

人性에서 중요한 骨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心”이다. 일반적으로 이 心은, 陸象山·王陽明으로부터는 ‘心이 곧 物理’이며, ‘모든 것은 心에서 추구해야한다는 學問’을 心學이라 일컬었으며, 程子和 朱子에 와서 ‘性은 곧 理’라는 學問을 性理學이라 하지만 이것은 체계적으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내용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점을 보완한 朱子는 心과 事物, 事物과 心과의 관계에서 학문의 진실성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즉, “格物致知”로써 修身過程(格物·致知·誠意·正心)과 治人過程(齊家·治國·平天下)을 중시하고 敬의 慎獨으로 心의 發動이 처음 已發 時의 性에서 發現한 것인가? 아니면 生理的 形氣에서 發現한 것인가를 省察하는데 그 요체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철학의 논리적 체계를 잘 이루고 있는 本體보다는 人性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것을 確證할 수 있겠

19) 『朱子大全』, 卷32, 答張欽夫.

다. 예컨대, 주자는 佛學과 心學을 두루 섭렵하고 비평하기를, 佛敎의 禪宗에서 진정한 心의 의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어 一切를 具足하니 모름지기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觀念에서 眞理를 추구하려는 관점을 지극히 배격하였고, 또 心學에서 王陽明의 ‘心外無理’ 혹은 ‘心外無物’의 主觀心理主義를 냉혹히 비판하였다. 그러한 후 그는 종래의 宇宙 本體를 理氣로 서술해왔었다면 人性에도 理氣를 適用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실한 논증에서 人性論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자는 “性を 理라고 하고, 인간의 心에서는 性이라고 한다.”²⁰⁾라는 명제를 확보하고 그는, “性是 인간이 받은 바의 天理이고 天道는 天理의 本體이다. 그러나 그것은 理一일 따름이다.”²¹⁾라고 心과 理의 관계를 압축하였다. 그는 『周易』의 「繫辭上傳」에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天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한 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一陰一陽하는 것을 道라고 일컬으며, 이것을 繼承한 것을 善이라고 하고, 이 善을 이루는 것을 인간의 性이라고 한다. 이것은 天이 인간과 사물에 賦與한 것이며, 인간과 사물은 天에서 받은 것이다.”²²⁾

위에서 주지하듯이, 天理라는 개념은 인간의 心性 속에 理一로서의 所以然的 理와 人間 分殊로서의 所當然의 理로 具備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자는 天理에 의거하여 性を 理一로서의 所以然的 理, 즉 여기에서 發現한 性を 本然之性이라고 하고, 반면에 人間 分殊로서의 所當然의 理 즉, 이 性を 氣質之性이라고 하였다. 주자는 本然之性和 氣質之性を 理一分殊說로서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20) 『朱子語類』, 卷61.

21) 『朱子語類』, 卷61 孟子11.

22) 『朱子大全』, 卷95. 程子書.

“天地之性도 있고, 氣質之性도 있다. 天地之性은 太極本然의 妙로서 萬殊(分殊)의 一本(理一)이요, 氣質之性은 陰陽二氣가 交運하여 生한 것으로 一本(理一)의 萬殊(分殊)이다.”²³⁾

주자가 주장하는 “理一”과 “分殊”에서 말하자면, 인간 전체를 類概念에서 보면 理一이다. 각각의 개인은 分殊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天地人物의 모든 존재 역시 理分殊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天地之性은 인간의 本然之性으로 理同의 普遍에서 말하여 分殊들의 理一인 셈이다. 氣質之性은 각각의 特殊에서 말하면 理一의 分殊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本然之性은 全的으로 理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氣質之性은 理가 氣 分殊 안에 이미 內在한 性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人間을 不完全한 存在”라고들 말한다. 이것은 무엇에 잣대를 두고 말함인가? 性과 心자체는 理로서 公共한 것이지만 氣質의 차이에 따라 “맑고 어두움”, “맑고 탁함”, “은전함과 치우침”, “거칠고 정미함”이 없을 수 없으므로 天의 本來性, 즉 理의 完全性を 실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치판단에서도 有善·有惡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자는, “모름지기 性은 氣를 겸해야 하고, 보는 데는 둘을 합쳐서 보아야 완전하다.”²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역시 퇴계도 本然의 妙는 存在마다 ‘같은 이치’(理一)를 內在하고 있지만 本然之妙의 理一이 形氣가운데 墮在할 때 仁의 實現이 分殊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認知해야한다고 力說한다. 그리하여 퇴계는 「西銘圖」를 上圖와 下圖로 나누고, 上圖는 理一分殊의 分별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上圖를 다시 둘로 나누었다. 그것은 전 백성과 사물은 天으로부터 동일한 性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性의 普遍性에서 모든 존재는 하

23) 『性理大全』, 卷30.

24) 『朱子語類』, 卷59, 孟子.

나의 같은 이치(理一)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人·物이 함께 산다는 것(並生)과 人間만이 仁을 實現한다는 것에서 事物과 存在들은 엄연히 分殊에 속한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天地사이에 충만한 것은 내 몸이요, 천지를 이끄는 것은 내 本性이다. 百姓과 事物과 兄弟는 이치가 하나(理一)이다.”²⁵⁾라고 하였다.

퇴계는 만물을 구성하는 내 몸과 본성도 천지를 근원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존재와 각각의 사물들은 “같은 이치”(理一)를 공유하면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그는 인간과 만물이 “함께 산다는 측면에서 仁을 말하고”(以並生之仁言) 다시 이러한 “原理를 인간이 實現한다는 측면에서 仁을 말하였다.”(以推行之仁言) 前者를 人物分殊라고 명명하고, 이에 따라 後者를 君臣分殊, 長幼分殊, 聖賢分殊, 貴賤分殊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이치는 결국 “하나로 歸結”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과 사물이 함께 산다는 측면에서 仁을 말하면, 人物分殊는 모든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理致는 人物이 終局에 가서는 하나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原理를 미루어 實踐한다는 측면에서 仁을 말하면, 君臣分殊는 임금은 내부모의 맏아들이며, 大臣은 맏아들의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이다. 그 다음, 長幼分殊는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모든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이요, 외롭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아이를 아이로 대하는 것이다. 그 다음, 聖賢分殊는 성인은 그 덕이 천지와 더불어 일치하는 사람이고, 현인은 보통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 다음, 貴賤分殊는 천하의 허약하고 병든 사람, 형제 없는 사람, 자식 없는 사람, 홀아비나 과부같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은 모두 나의 형제 가운데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君臣分殊, 長幼分殊, 聖賢分殊, 貴賤

25) 『退溪集』, 聖學十圖, 西銘圖.

分殊는 모두 '하나의 理致로 歸結(理歸于一)'²⁶⁾되는 것이다."

퇴계의 聖學十圖에서 논의하고 있는 下圖는 아버이를 섬기는 정성을 극진히 하여 하늘을 섬기는 도리를 밝히는 것에 대해 논한 것이다. 즉, 아버이를 극진하게 섬기듯이 하늘을 극진하게 섬겨야한다는 理一分殊의 實踐構圖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그것은 도를 극진하게 하는 것과 극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의 구분”(盡道不盡道之分)과 “성인은 천지와 덕이 일치하기 때문에 도를 극진하게 함”(聖合德故盡道)과 “현인은 빼어났기 때문에 도를 극진하게 추구함”(賢其秀求盡道)과 “성인과 현인이 각각 도를 극진하게 함”(聖賢各盡道)과 “도를 극진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극하게 됨”(盡道於此爲至)이다. 이것은 “理一에 대한 分殊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퇴계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첫째로, 道를 극진하게 하는 것과 극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의 구분은, 하늘의 뜻에 따르며 天命을 잘 보존하는 사람은 天地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즐거워하고 또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孝誠이 두터운 사람이다. 그 다음 극진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는, 天命을 어기는 것을 悖德이라 하고, 仁을 해치는 것을 賊이라고 한다. 惡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탕이 없는 사람이며 타고난 모습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효자이다.〔盡道不盡道之分—于時保之子之翼也 樂且不憂純乎孝者也 違曰悖德 害仁曰賊 濟惡者不才 其踐形惟肖者也〕

둘째로, 성인은 天地와 덕이 일치하기 때문에 道를 극진하게 함에서, 천지의 변화에 대해서 알면 천지의 일을 잘 이어갈 것이요, 신명을 다하면 천지의 뜻을 잘 계승할 것이다.〔聖合德故盡道—知化則善述其事 窮神則善繼其志〕

셋째로, 賢人은 빼어나기 때문에 道를 극진하게 할 것을 추구함에서,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을 보존하고 本性을 잘 기르는 것’(主敬)이 부모를 섬기는데 소홀하지 않는 것이다.〔賢其秀求盡道—不愧屋漏爲無忝 存心養性爲匪懈〕

26) 『退溪集』, 聖學十圖, 西銘圖.

넷째로, 聖人과 賢인이 각각 道를 극진하게 함에서 例證을 제시한다. 그것은 맛좋은 술을 싫어한 것은 禹王이 아버지를 돌보는 것과 같고, 27) 英才를 기르는 것은 영고숙이 다른 사람조차 효자로 만드는 것²⁸⁾과 같다. 그리고 고생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효성을 게을리 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한 것은 舜임금의 공로²⁹⁾이며, 도망치지 않고 죽기를 기다렸던 것은 申生の 公경합³⁰⁾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한 사람은 曾子³¹⁾였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데 용감하여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은 백기³²⁾였다. [聖賢各盡道—惡旨酒 崇伯子之顯養 育英才 穎封人之錫類 不弛勞而底豫 舜其功也 無所逃而待烹 申生其恭也 體其受而歸全者 參乎 勇於從而順令者 伯奇也]

- 27) 옛날에 의적이 맛있는 술을 만들었는데, 禹王은 그 술을 먹어보고 난 후 이 술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술을 끊었다. 그 이유는 술 때문에 父母를 봉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온 고사이다.
- 28) 춘추전국시대 정 나라의 임금인 장공은 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장공은 어머니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지하에 가둬둔 뒤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장공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때 효자로 알려진 신하 영고숙이 장공을 찾아가 땅굴을 파고 어머니를 만나면 저승에서 만나는 것과 같다고 알려 주었다. 이로부터 모자의 정이 다시 원상복귀 되었다. 이렇게 영고숙은 자신의 효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효를 실천하게 했다는 것이다.
- 29) 무지한 舜의 아버지는 후처만 좋아하고 舜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악랄한 舜의 繼母는 이복동생과 함께 舜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舜은 끝까지 효로써 奉養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복동생마저 감동하게 만들어 가정을 아주 화목한 분위기로 바꿨다. 그리고 堯임금에 이어서 三代 정치에서 德으로 다스리는 聖君이 되었다.
- 30) 쯤나라의 憲公이 여희의 모함으로 태자인 申生을 죽이려 했다. 쯤 사람이 변명하라고 했으나 申生은 거절하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고 권했으나 역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申生이 죽은 뒤에 그의 讎讒를 恭字로 내렸다. 어려움에 처해 목숨을 바쳐도 흔들리지 않음이 이와 같다면,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이 申生의 恭과 같다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 31) 曾子는 孔子의 유일한 제자로써 효성이 남달리 지극하였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불러 놓고 “이불을 걷고 내 손발을 보아라. 詩經에 ‘전전공궁하며 깊은 연못에 있는 듯하고 살얼음 얇은 듯이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야 나는 몸이 다칠까하는 근심에서 벗어난 것을 알겠다.”라고 말하였다. 누구보다도 신체를 죽을 때까지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을 曾子는 지극한 효성으로 여겼다.
- 32) 伯奇의 아버지 尹吉甫는 후처의 말을 듣고 伯奇를 내 쫓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었던 伯奇는 다음날 아침 들판에 서서 거문고를 타며 ‘履霜操’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고사이다.

다섯째로, 道를 지극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극하게 됨은 富貴와 幸福은 장차 나의 삶을 두텁게 할 것이며, 가난함과 근심 걱정은 나에게 시련을 주어 자신을 완성하도록 갈고 닦아 줄 것이다. 살아 있는 동안에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길 것이며 죽을 때는 편안하게 돌아 갈 것이다.”³³⁾〔盡道於此爲至—富貴福澤將厚吾之生也 貧賤〕憂戚 庸玉女于成也 存吾順事 沒吾寧也〕

위에서 주지하듯이 퇴계는 “天地의 변화에 대해서 알면 天地의 일을 ‘잘 이어 나가고’(善述), 인간이 神明을 다하면 天地의 뜻을 ‘잘 계승할 것이다’(善繼)”라고 하는 구절에서 哲學的 意義를 두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天理의 理—은 인간과 사물의 分殊가운데 있으므로 天理는 인간과 사물의 分殊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理—과 分殊의 관계는 普遍과 特殊의 관계로써, 보편은 언제나 특수 속에 깃들여 있으며, 특수를 떠난 보편은 아직 존재한 바도 없거나와 미래에도 영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논리상에서는 天理의 理—이 超越先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實在의 인간 존재나 사물 속에는 어떤 原理가 현실적으로 共存 內在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理는 理요, 分殊는 分殊이기 때문에 分殊는 變易性이 있어도 理—은 언제나 不易性을 갖는다. 이 不易性은 眞實無妄한 것이며, 人間의 假飾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假飾이 없는 진솔한 理—이야말로 程子は “物과 나의 理가 다를 수 없고, 비로소 저것이 밝으므로 이것이 밝아 內外가 分離될 수 없는 일이다.”³⁴⁾라고 주장함에서 理—에 대한 인간의 修養論 즉, 主敬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어버이를 섬기는 道理 즉, 孝道의 개념을 天理의 發源으로 보고 孝를 지극히 하는 행위를 盡道라고 하였다. 이러한 盡道는 바로 禹王

33) 『退溪集』, 聖學十圖, 「西銘圖」, 下圖.

34) 『二程遺書』, 卷18.

이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는 일, 영고숙이 효도로 남에게 龜鑑이 되는 일, 舜 임금의 효도로 인해 聖君이 되는 일, 申生이 효도에 쏟은 一貫된 마음, 신체는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라고 毀傷하지 않으려는 曾子의 孝心,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었던 伯奇의 孝心을 모두 “盡道”라는 개념을 골격으로 하여 具體的 事實에서 天理의 實行을 例證하려는 儒家의 宗旨를 유감없이 發現하고 있는 것이다.

3. 敬의 修鍊을 要諦로 하는 領域

1) “一身主宰의 本心”과 “一心主宰의 敬”을 綜合한 心學圖

(1) 一身主宰의 “本心”

퇴계가 나타내고 있는 “心學圖”는 둥근 원 주변으로 여섯 개의 사각형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러운 존재’(虛靈)이며, ‘마음은 인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知覺) 또 ‘마음은 신령스러우면서 밝은 존재’(神明)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心의 定義를 나타낸 말들이다. 둘째로, 心 아래에 ‘一身主宰’라는 개념이 씌어 있는데 이것은 心이 우리의 몸을 主宰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는 中樞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둥근 원 주변으로 여섯 개의 心을 配列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마음의 多樣性을 말한다. 그 중 퇴계는 “格物致知”를 道問學으로, “居敬窮理”를 尊德性으로 분류하고 결합하여 체계화하는 것은 당연히 本心이 차지하는 몫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本心の 機能은 ‘心에 本具된 先天的 仁義에 따라 행위’(由仁義行)하는 ‘性善’이 있으므로 이것은 靈明洞察한 直觀能力을 발휘함으로 外物에 應하여 움직이되 항상 中和의 中節만을 고집하는 主體이기 때문이다.

철학의 여러 범주 중 특히 人性論의 요람을 이루고 있는 맹자는 “本心을 다하면 性을 알고 性을 알면 天命을 안다”³⁵⁾는 盡心→知性→知天은 모두 인간만이 가진 본심의 유일한 본질, 즉 인간의 本心에 內在된 四端(仁義禮智)에서 天道를 自覺한다는 대전제를 발현해 낸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현실적으로 방만하고 느슨한 우리에게 실감 있게 들리는 점은, “心の機能은 생각하는 힘이 있으므로 생각하면 깨닫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³⁶⁾는 것과 반면에, “귀나 눈의 구실은 생각하는 힘이 없으므로 物欲으로 인해 가려지는 것이니 物欲과 外物에 얽히면 耳目은 끌려가기 마련이다.”³⁷⁾라는 本心の機能에서, 우리가 외부 사물에 끌리어 주관을 상실하고 물질에 耽溺되는 被動的 行위를 止揚하고, 本性의 主觀의 存心(마음이 本心을 保存함)을 本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주관적 存心은 理致를 洞察하고 意志를 確立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持敬”(공경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퇴계는 聖學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本心の “存養”을 강조한다. “存”이란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本心을 存한다는 것이다. 本心을 存한다는 것은 人性 속에 先天的 原理로 있는 仁義禮智의 四德을 保存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자기의 本心을 保存하고, 자기의 本性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³⁸⁾이라고 천명하였다. “養”이란 本心을 ‘기른다’는 것이다. 本心을 養하면 그것이 자라게 되어 ‘道에 대한 自覺’과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明道”와 “集義”이다. 퇴계는 本心の 啓發은 聖學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한 치도 굽히지 않는 일이 바로 그 당시 宣祖께 올린 忠貞의 諫諍(임금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箴言이다. 이것은 즉 인간의 本心이 나태해지고 방종해지는 것

35) 『孟子』, 盡心章 上1.

36) 『孟子』, 告子篇.

37) 『孟子』, 告子篇.

38) 『孟子』 盡心上,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을 막으려는 일로써 좋은 예증이 된다. 그것을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금의 마음은 나라의 모든 政事가 나오는 곳이며,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욕심들이 서로 공격하고, 모든 사악함이 번갈아 가며 마음을 손상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고 방종해지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처럼 넘치게 될 것이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옛날의 성스러운 임금과 현명한 왕들은 이것을 걱정하여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드는 관직을 세우고, 諫諍하는 직책을 두었으며, 전후좌우에 임금을 모시는 직책을 두었습니다. 수레를 탈 때는 무술에 뛰어난 호위병이 보호하였고, 조회 때에는 벼슬아치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에는 聖賢의 교훈을 들려주는 신하가 있었고, 침실에서는 왕을 모시는 신하가 箴言(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을 들려주었으며, 일을 처리할 때는 점을 쳐서 왕을 돕는 신하가 있었고, 평소에는 匠人들이 일하며 왕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반이라든가 밥그릇, 책상, 지팡이, 칼, 들창에 이르기까지 눈길 닿는 곳이나 몸이 거처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경계하는 말을 걸어 두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³⁹⁾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퇴계는 思·學을 兼備하고, 動·靜을 一貫하고 內·外를 合하며, 顯·微를 一貫하게 되는 道理를 本心으로 持敬하도록 강조하는 것이었다.

(2) 一心主宰의 “敬”

퇴계의 心學圖 제2圖의 상단에 마음을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함(惟精惟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擇善而固執”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온다. 이것은 『中庸』에 나오는 말로 “좋은 것을 택하여 굳게 지킨다.(擇善而固執)”라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 의미는 우리가 “持敬해

39) 『退溪集』, 聖學十圖.

야 할 일” 이외에는 없으며, 그것을 계승하여 “切磋琢磨하는 일” 이외에는 더 없을 것이다. 먼저, 敬의 修練을 위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惟精惟一”이라는 개념은 『尙書』 「大禹謨篇」에 나오는 말이며, 이것을 인용한 주자는 그의 中庸章句序에서 “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道心은 오직 精微하다. 마음을 오직 精微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하나의 標準(中)을 잡는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는 것에서 “人心과 道心の 차이점”을 분류하고, 인식해야한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心の 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이다. 人心과 道心の 다름이 있는 것은 그것이 形氣의 사사로움에서 生하고, 혹은 性命의 바름에서 根源하니 知覺하는 까닭이 不同하다. 이로써 危殆하여 不安하며, 혹은 微妙하여 보기가 어려울 따름이다.”⁴⁰⁾

주자는 人心과 道心に 대해서 그 所從來를 밝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人心은 形氣之私에서 生하고, 道心은 性命之正에서 由來한다고 논파하였다. 여기에서 “形氣之私”란 인간의 身體 즉, 血肉과 形體로써 感覺이나 感性에서 오는 사사로움을 人心이라 하고, “性命之正”은 하늘이 인간에게 命한 純粹之性이나 理性에 근거하여 道心이라고 말한 것 같다. 그리고 程伊川도 人心은 私欲으로, 道心을 天理라고 다음과 같이 구별한 바 있다.

“人心은 私欲인 고로 危殆하고, 道心은 天理인 고로 精微하다.”⁴¹⁾

程伊川은 人心을 私欲과 人欲으로 보고, 이것은 感覺的 感性이며, 개체들의 사사로움 私欲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人間の 조작과 인위에서 오는 變易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道心은 天理이며 누구나 부여받은 普遍의 共通된 人心으로

40) 朱子, 『中庸章句序』.

41) 『二程全書』, 卷27.

로 天理의 不易으로 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精微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이천과 주자에 이어 퇴계는 一心을 主宰하는 “道心の 回復”과 道心の 回復으로 말미암아 持敬存仁할 것을 力說하고, 이에 대처하는 方案으로 “存天理遏人欲說”⁴²⁾을 주장하였다. 먼저 程伊川은, 持敬을 指向하는 修養에서 私欲과 天理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私欲을 滅한 즉 天理가 밝아진다.”⁴³⁾

그리고 주자는, “存天理滅人欲”은 누구나 배우려는 자는 體認하고 省察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人間の 一心에 天理를 保存하면 人欲은 없어지고, 人欲이 勝하면 天理가 滅한다. 天理와 人欲은 夾雜함이 없다.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이것을 體認하고 이것을 省察해야 한다.”⁴⁴⁾

또 주자는 道心과 人欲은 상호 進·退와 長·短의 作用을 유지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人欲을 革盡하고 天理를 復盡해야 한다. 비로소 이것이 學이다. 인간은 다만 이 天理와 人欲이 있을 뿐, 이것이 勝하면 저것이 退하고, 저것이 勝하면 이것이 退하니 中立함으로써 進·退하지 않는 이치는 없다. 무릇 사람은 나아가지 않으면 곧 물러간다. 이제 다만 人欲과 天理를 分別하면, 이것이 長해지면 저것이 短해지고 이것이 短해지면 저것이 長해진다.”⁴⁵⁾

42) 『退溪集』, 聖學十圖, 心學圖說.

43) 『二程全書』, 卷27.

44) 『朱子語類』, 卷13.

45) 『朱子語類』, 卷13.

이에 따라 퇴계는 마음을 다스리는工夫는 “先天的으로 타고난 本心을 保存하는工夫”와 “인간의 欲望에서 오는 欲心을 막는工夫” 중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心學圖를 그린 까닭은 ‘오직 정미하게 살피서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것’(惟精惟一)과 ‘선을 선택하여 굳게 지키는 것’(擇善固執)이며, 그 그림 아래는 ‘人間的 欲心을 막고 天理를 保存하는工夫’(存天理)를 말함이다. 그리고 慎獨 아래는, ‘인간의 欲心을 막는工夫’(遏人欲)인데,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不動心의 境地에 이르러야 富와 名譽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가난함과 천함에도 마음을 바꾸지 못하며, 위협이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여, 道가 밝아지고 德이 確立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戒懼 아래는, 天理를 보존하는工夫인데, 반드시 從心의 境地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곧 本體이고 欲望이 곧 作用이며, 本體가 곧 道이고, 作用이 곧 義이며, 音聲이 음률에 맞고 몸은 法度에 맞게 되어, 생각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힘쓰지 않아도 적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⁴⁶⁾

퇴계는 聖學十圖에서 “存天理의工夫”와 “遏人欲의工夫”를 두 가지로 나누어 圖解하고 있다. 이것의 의도는 一身을 主宰하는 것이 心이며, 一心을 主宰하는 것이 敬이라고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퇴계가 그토록 敬을 간직하고 유지하려는 것(持敬)은 무엇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이 捷徑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퇴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보존(存天理)하는工夫”를 머리 그림으로 하여 戒懼에서 七十而從心까지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戒懼란 『大學』에 나오는 말로, “남이 보지 않아도 항상 경계하고 삼가며 남이 듣지 않을 때도 두려워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操存은 “마음이란 잡으면 보존되고 버리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 다음, 心思는 “마음은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良心은 “타고 난 본성을 길러라”는 뜻이며, 盡心

46) 『退溪集』, 聖學十圖, 心學圖.

은 “마음을 극진히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從心이란 『論語』 「爲政篇」에 나오는 말로 공자의 綜合的 人間觀, 즉 人性과 道德律이 한데 어우러진 “일흔 살이 되어서야 나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하여도 한 치의 法網에 걸리는 일이 없었다.”는 超人間的 境地를 대변한 말이다.

그 다음, 퇴계는 “欲心を 막는工夫”(遏人欲)로써 그 圖解를 살펴보면, 慎獨에서 四十不動心까지 여섯 개를 나열하고 있다. 처음으로 나오는 慎獨은 『大學』에 나오는 말로 “혼자 있을 때를 특히 삼가 하라.”는 뜻이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혼자 있을 때를 삼가고,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戰戰兢兢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克復이란 『論語』의 克己復禮의 略語이다. “자신을 超克하여 ‘天理의 節文’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求放心이란 개념은 『孟子』에 나온다. 그것은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心在는 『大學』에 나오며, 오직 마음의 意志로써,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不動心이란 『孟子』에 나오는 말로써 “마음이 유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퇴계는 堯·舜·禹의 太平聖代를 指向하여 거리의 사람들이 타고난 본래의 옳한 마음을 確立하고 存養하여 인간의 지나친 欲心を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더불어 聖인들이 바라는 理想世界가 바로 이런 곳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2) 敬의 修鍊을 專一하는 夙興夜寐箴圖

(1) 夙寤와 晨興

“夙興夜寐箴圖”는 진백이 글을 쓰고 퇴계가 그림을 그린 것이다. 퇴계는 敬齋箴圖를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였다. “夙興夜寐”라는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잔다.”는 뜻이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여 학문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敬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夙興夜寐箴圖”를 圖解하고 일곱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 1, 2 領域은 “일찍 잠에서 깬다(夙寤)”는 것과 “새벽에 일어난다(晨興).”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침시간으로 잠에 깨어나서 지난날의 잘못을 反省하고 新得한 생각을 모으고 次第와 條理를 분명히 해서 持敬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닭이 울어서 잠이 깨어나면(鷄鳴而寤) 생각이 차츰 일어나게 되니(思慮漸馳) 그 사이에(盍於其間) 조용히 마음을 정돈해야 한다.(澹以整之) 혹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或省舊愆) 혹은 새로 깨달은 것을 모아서(或紬新得) 차례와 조리를(次第條理)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瞭然默識) 근본이 확립되었으면(本既立矣)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昧爽乃興)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갖추어 입고(盥櫛衣冠) 단정하게 앉아 몸을 가다듬는다.(端坐斂形) 마음을 끌어 모으되(提擥此心) 밝게 떠오르는 햇살처럼 해야 한다.(皦如出日) 몸을 엄숙히 하고 가지런하게 정돈하며(嚴肅整齊) 마음을 텅 빈 듯하게 하면서 맑고 고요하게 한결같이 해야 한다.(虛明靜一)”⁴⁷⁾

(2) 讀書과 應事

3, 4 領域은 “글을 읽음(讀書)”과 “일에 대응하는 자세(應事)”로써 즉, 낮 시간의 讀書에서 持敬을 實踐하는 일과 萬事に 對應하는 格物致知의 요령을 말했다. 그리고 퇴계는, 독서와 실천에서 공자의 제자 顏淵과 曾子를 讀書과 應事에서 龜鑑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하여 顏淵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할 정도로 날렵하고 博學했으며, 曾子는 孝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道問學을 위한 審問에서도 顏淵과 曾子처럼 질문과 辯論을 항상 反覆하고 參考하여 바르게 고쳐야한다고 피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일에 應할 때는 말보다는 實踐으로 證明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47) 『退溪集』 聖學十圖, 夙興夜寐箴圖.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책을 펴서(乃啓方冊) 성현을 대하게 되면(對越聖賢) 공자께서 자리에 계시고(夫子在坐) 안희와 증자가 앞뒤에 있을 것이다.(顏曾後先) 성현께서 말씀하신 것을(聖師所言) 친절하게 귀담아 듣고(親切敬聽) 제자들의 질문과 변론을(弟子問辨) 반복하고 참고해서 바르게 고쳐야 한다.(反覆參訂) 일이 생겨서 대응하게 될 경우에는(事至斯應)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則驗于爲) 밝은 천명은 빛나는 것이니(明命赫然) 항상 눈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常目在之) 일에 대응하고 나면(事應既已) 나는 예전과 같이(我則如故)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정신을 모아(方寸湛然) 사사로운 생각을 멈추게 해야 한다.(凝神息慮)”⁴⁸⁾

(3) 日乾과 夕惕

5, 6 領域은 “낮이 다할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日乾)”하고 “저녁에도 항상 조심하고 정신과 마음을 거경(夕惕)”하는 것이다. 저녁시간에는 항상 마음을 戒愼恐懼하고 靜存動察하여도 들, 셋으로 나뉘어서는 안 되며, 정신과 마음으로 性情을 맑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다시 말한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순환하는 것을(動靜循環) 오직 마음만은 볼 수 있으므로(惟心是監) 고요할 때는 이 마음을 잘 보존하고 움직일 때는 잘 관찰해서(靜存動察) 마음이 둘 또는 셋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勿貳勿參) 글을 읽다가 틈이 나면(讀書之餘) 간혹 휴식을 취하고(間以游詠) 정신을 활짝 차리고(發舒精神) 성정을 아름답게 길러야 한다.(休養性情)”

“날이 저물어 사람이 피곤해지면(日暮人倦)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쉬우므로(昏氣易乘)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癡狂整齊) 정신을 맑게 이끌어야 한다.(振拔精明) 밤이 깊어 잠을 잘 때는(夜久斯寐) 손발을 가지런하게 모아(齊手斂足)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고(不作思惟) 마음과 정신을 잠들게 해야 한다.(心神備宿)”⁴⁹⁾

48) 『退溪集』, 聖學十圖, 夙興夜寐箴圖.

49) 上揭書.

(4) 兼夙夜

마지막 7영역은 “낮부터 밤까지 자신의 정신과 氣를 보존하는 것(兼夙夜)”이다. 낮부터 밤까지 敬을 存養하고 省察하여 항상 敬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여 밤의 氣運으로 마음과 정신을 잘 기르면 貞이 다시 元으로 復歸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밤의 기운으로 마음과 정신을 잘 기르면(養以夜氣) 貞이 다시 元으로 돌아올 것이다.(貞則復元)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念茲在茲)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日夕乾乾)”라고 하였다.⁵⁰⁾

위에서 주지하듯이, 『周易』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주일무적(主一無適)”과 흡사하게 퇴계의 夙興夜寐箴圖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가지런하게 하여 마음을 엄숙하게 유지하는 정재엄숙(整齋嚴肅)”이나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상성성법(常惺惺法)”과 “마음을 잘 거두어 들여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심수렴(其心收斂)”은 모두 宇宙와 人間을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로 하여 天地와 人間은 하나의 根源에서 나온 同一存在로 보는 것은, 人間은 自然의 法則을 본받아 完成된다는 儒家의 宗旨를 一貫하고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퇴계는 “사람이 道를 넓히는 것이며, 道가 사람을 넓히지는 못 한다”⁵¹⁾는 “道問學”과 “尊德性”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道問學에서는 세부적으로 讀書와 應事를 들고 있으며, 그것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敬에 의한 實踐工夫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尊德性”으로는 오직 日乾과 夕惕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敬의 境地에 들어간다는 “常惺惺法”의 慎獨은 “잠시도 人間은 道를 떠날 수 없다”⁵²⁾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0) 上揭書.

51) 『論語』, 衛靈公 15.

52) 『中庸』,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4. 結論

우리는 퇴계의 『聖學十圖』에 나타난 “主敬”의 意味를 두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그것은 “敬의 原理를 存養하는 영역”과 “敬의 修鍊을 實現하는 영역”이 되겠다. 먼저 “敬의 原理를 存養하는 영역”에는 萬物의 生成原理인 太極圖를 首位에 두고 있다. 太極圖의 圖解는 生成과 變化, 變化와 生成, 그 自體가 太極이고, 太極의 屬性이 바로 無極인 셈이다. 그것을 주로 變易 관계에서 말하여 易(세상만물이 변화하는 원리)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易’이라는 概念은 필연적으로 두 對象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두 대상의 만남 즉, “待對” 혹은 “對立”의 조화를 이룰 때만 生成되거나 變化가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天地는 陽과 陰이라는 두 대상이 待對하고 合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水·火·木·金·土의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五行이다. 太極은 陰陽을 內在하고 動을 靜으로, 靜을 動으로 움직이게 하는 條理(原理)가 바로 “易의 原理”인 동시에 “宇宙의 本源”이다. 이러한 宇宙의 本源을 이루고 있는 전체 變化構造를 일컬어 퇴계는 “統體一太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陰陽의 氣가 動靜하면서부터 森羅萬象은 天命에 의해 하나의 本性을 부여받게 된다. 陽의 乾道를 받은 것은 수컷이 되고, 陰의 坤道를 받은 것은 암컷이 된다. 儒家 경전 중에 특히 『中庸』에서는 人間은 天理를 賦與받아 本性을 완벽하게 具備한 存在라고 말한다. 이러한 天命에 근거해서 演繹한 論理에 의하면, 각각의 存在마다 각각의 太極이 갖추어진다는 것이 바로 “各具一太極”인 것이다.

그 다음, 퇴계는 西銘圖에서 “함께 생한다”는 측면과 “미루어 實踐한다”는 측면에서 仁을 나누어 말하고 있다. 전자는 人物分殊에 속하고, 후자는 君臣分殊, 長幼分殊, 聖賢分殊, 貴賤分殊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모든 理致는 하나의 根源에서 나왔다는 것”에 있다. 이 점에서 퇴계는, 모든 존재나 사물은 天이 天賦한 同一한 本性을 所

有하고 있다는 普遍性에서 “理一”의 부분에 적용시키고, 각각의 존재는 思考나 價値를 추구하는 면이 다르다는 特殊性에서 〈君·臣, 長·幼, 聖·賢, 貴·賤〉을 “分殊”의 부분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分殊에 있는 天地萬物은 形象이 모두 다를지라도 “함께 생한다는 측면”에서 仁을 말하고 있으며, 각각의 개별 존재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의 이치로 귀결된다는 “理歸于一說”을 분명히 논파하고 있다.

그 다음, “敬의 修鍊을 實現하는 領域”에서 퇴계는, “人心은 私欲인 고로 危殆하고 道心은 天理인고로 精微하다. 人欲을 멸한 즉 天理가 밝아진다.”는 程伊川과 주자의 心性을 繼承하여, 자신의 心性論의 構造를 構築하였다. 그리하여, 그도 또한 天理의 本心을 存養하고 人欲을 막는다는 “存天理遏人欲說”을 천발하게 되었다. “存天理”라는 명제는 “尊德性的의 항목”으로써 언제나 戒愼·恐懼하려는 本心の “愼獨”을 강조하는 것이다. 愼獨은 生理的 物欲에 끌리지 않고 天理의 本心이 直出되는 純粹行爲이다. 그리고 愼獨은 사물과 접할 때, 初心이 已發할 때를 省察하여 天理의 本心으로 復歸하게 하는 敬의 修鍊與否에서 決定된다는 중요한 端緒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夙興夜寐箴圖에서의 敬의 修鍊은 “道問學의 항목”으로써 홀로 篤實히 行한다는 心志의 “篤行”에 있다. 이러한 독행을 실현함에 있어 “夙寤”와 “晨興”에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虛明靜一하게 해야 하며, “讀書”함에는 博學과 審問에 주력하고, 사건에 응하는 “應事”에는 실천으로 증명하고(則驗于爲),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사사로운 생각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凝神息慮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日乾”과 “夕惕” 그리고 “兼夙夜”에는 “고요할 때는 마음을 잘 보존하고, 움직일 때는 마음을 세밀히 관찰하여(靜存動察),” “마음이 들 셋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勿貳勿參)는 篤行을 最大로 修鍊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자료

- 『退溪集』, 韓國의思想大全集, 同和出版公社, 1985.
『退溪全書今注今譯』, 1, 2, 3卷, 四川大學出版社, 1991.
『增補退溪全書』, 成均館大學校 대동문화연구소 영인본, 1985.
『儒學大事典』, 上下, 儒教事典編纂委員會, 博英社, 1990.
『論語講說』,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
『孟子』, 1, 2卷, 汎朝社, 1986.
『大學』, 『中庸』, 惠園出版社, 1998.

▮ 저서 및 논문

- 이광호, 『성학십도』, 서울 : 홍익출판사, 1998.
『하늘은 말이 없고 도는 형상이 없다』, 퇴계학연구원 간행, 1997.
최영갑, 『성학십도』, 도서출판 : 풀빛, 2005.
『儒學原論』, 成均館大學校教材編纂委員會,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6.
張立文, 『退溪哲學入門』, 退溪學研究院刊行, 1990.
裒宗鎬, 『韓國儒學史』, 延世大學校出版部, 1997.
_____, 「退溪先生の 人性論」, 『退溪學報』, 第32輯, 退溪學研究院, 1981.
琴章泰, 「敬齋箴圖와 退溪의 居敬修養論」, 『退溪學報』, 第48輯, 退溪學研究院, 1985.
_____, 「聖學十圖 註釋과 朝鮮後期 退溪學의 展開」, 『退溪學報』, 第48輯, 退溪學研究院, 1985.
_____, 「退溪에 있어 太極圖와 天命新圖의 解釋과 相關性」, 『退溪學研究論叢』, 第1卷,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97.
權五鳳, 「聖學十圖의 中國頒傳」, 『退溪學研究論叢』, 第3卷, 1997.
_____,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 浦項工科大学校, 教養學部, 1989.
尹絲淳, 「退溪의 人間觀」, 『退溪學研究論叢』, 第2卷, 1997.
李海英 「李滉의 修養論-「聖學十圖」와 敬을 中心」, 『退溪學』, 제7호, 安東大退溪學研究

所, 1995.

- 李相益, 「誠·敬論의 存在論的 基礎」, 『退溪學研究論叢』, 第3卷, 1997.
- 金鍾錫, 「마음의 哲學 -退溪心學의 構造分析-」, 『退溪學研究論叢』, 第2卷, 1997.
- 金泰泳, 「韓國儒學에서의 誠敬思想」, 『退溪學研究論叢』, 第3卷, 1997.
- 安炳周, 「儒教의 憂患意識과 退溪의 敬」, 『退溪學研究論叢』, 第3卷, 1997.
- 李京植, 「退溪의 人性論」, 『退溪學研究論叢』, 第2卷, 1997.
- 李相殷, 「聖學十圖解釋」, 『退溪學報』, 第2輯 退溪學研究院, 1982.
- 柳正東, 「退溪先生의 格物致知에 대한 認識論 考察」, 退溪學研究論叢, 第1卷, 1997.

Abstract

The true meaning of primary respect of Tui Xi

Cheon, Byung-Joon

Our purpose is to find the true meaning of 'primary respect'(主敬) in Tui Xi's 'Learning ten diagrams to become a saint'(聖學十圖).

Tui Xi divides it into two categories: 'Human preservation and cultivation of the principle of respect' and 'Human actualization through training of the principle of respect'. The first province shows the diagram of the supreme pole which describes the creation of nature. This means the creation and changes itself is the supreme pole and by the supreme pole's main character, it says 'no extremity of endlessness'. In Tui Xi's confucius' philosophy's point of view, it asserts that the supreme pole is the principle of changes and at the same time the origin of the universe. By this it is said to be 'the supreme pole of the whole universe'. As soon as human or objects receive its original nature, every being that receives different supreme pole is called 'individual's supreme pole'.

In Tui Xi's diagram of inscription on the western wall which is called Hsi Ming Thu (西銘圖), it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configuration could be different from the universal nature and in to a logic that emphasizes on becoming the one same principle.

Next, Tui Xi differs into two categories for the cultivation of one's mind. One is described that human mind is endangered for its personal greed. The other describes that human's original nature which is gifted by heaven clarifies how it is precise and delicate. So it is important to preserve human's mind gifted by heaven and restrain the mind that comes out from the physiological desire. He says, "the respect of mind gifted from heaven" means it depends on the cultivation of one's mind. Also to cultivate one's mind, he always keeps in mind to draw a diagram that could control one's mind. He asserts the carefulness of

being alone by drawing a diagram which one could keep it in its mind when waking up early or even when falling asleep while studying late. On the other hand, he also says that it is important to preserve one's mind for sure in the moment of calmness, and not separate into several minds by controlling well in the moment of movement. This is called 'the cultivation performed by oneself'. So Tui Xi considers the ten diagrams as the main point in terms of "primary respect", which is the best purpose of Confucius' Philosophy.

Key Word

primary respect, the supreme pole, confucius' philosophy, the cultivation of one's mind, learning ten diagrams to become a saint, the inscription on the western wall